

창의인재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 지 연

한국과학창의재단

김 성 국

한국과학창의재단

변 재 규

한국과학창의재단

본 연구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창의인재육성 실현이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적 토양과 문화를 고려한 창의인재육성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예술, 과학 영역 및 산학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적 창의인재에 대한 정의와 그 요소, 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을 ‘융합’과 ‘통합’의 키워드에서 찾을 수 있었고, 세부적으로는 평생교육측면에서 창의인재육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었다.

주제어: 창의성, 창의인재육성, 융합, 통합, 평생교육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는 1990년대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형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꾀함으로써 창의인재육성과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게임기 전문 회사인 닌텐도는 세계 경제가 불황이던 시기에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창의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닌텐도 Wii’와 ‘닌텐도 DS’를 개발하여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360%가 증가하였으며, 영업 이익은 6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송충한 외, 2009).

흔히들 현대는 지식기반사회라고 말한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기본적인 경제자원이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대의 사회적 통합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기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일종의 ‘모방형 인적자본’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얼마나 많은 학습역량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했다(김왕동, 성지은, 2009). 하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창의인

교신저자: 변재규(byonjg@kofac.or.kr)

*본 연구는 과학창의재단이 직원연구역량강화지원사업(SGR; Small Group Research)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2010년 12월 발표한 ‘창의인재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이라는 연구논문을 다듬은 것으로, 교육과정개발실장 이은아 박사의 도움도 있었다.

제를 양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의인재의 핵심은 단어가 보여주는 대로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성이란 단순히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물이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즉, 나 개인만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대한 발전일 것이며, 그 기저에는 더불어 살 줄 아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창의성은 상징적인 규칙들을 포함하는 문화, 상징영역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사람, 그리고 새로움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전문가라는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Mihaly, 1996). 따라서 창의적 산출물은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활동을 통해 얻어진다. 창의적 사고와 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문화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창의적 산출물의 양과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문화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는 어떤 새로움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전문가의 판단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나와 타인, 우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롭고 이로운 창의적 활동을 하는 창의인재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나 지역의 문화적 영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대다수 연구논문들은 다른 문화권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창의인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각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것처럼 창의성을 핵심역량으로 하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한 창의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한국적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사회·교육적 시스템의 재정비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평생교육차원에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모색 또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과 개선점, 교육 선진국의 정책특징 및 시사점, 각계 전문가들을 활용한 질적 연구 등을 통해 한국적 토양에 부합하는 창의인재의 정의와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적 환경이 포함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어떤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미래 한국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추진하였다.

1.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환경 분석

국내 16개 시도교육청의 2010년 교육계획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교육 선진국의 교육정책 동향과 사례 또한 조사·분석함으로써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환경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교육 선진국의 정책목적 및 특징조사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한국적 창의인재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교육계획뿐 아니라, 해외 교육 선진국의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특징 및 시사점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 외에도 각계 전문가들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인재에 대한 정의와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평생교육 차원에서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I. 국내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 선진국의 특징

1. 국내 교육정책의 방향과 개선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교육청 2010학년도 수립한 교육계획서를 참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웹사이트 주소 참고문헌 참조)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계획서 중 창의인재육성에 대한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분석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은 공통적으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육성”을 기본 교육지표로 하고 있었다. 예컨대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란 기본적으로 기초·기본 학력을 기저로 한 창의적 활동을 수행하고, 창의적 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른 인성을 함양한 인재였다. 또한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지표로 삼은 창의인재육성에 대한 공통적인 정책방향은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구현 등 네 가지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바른 삶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그리고 학생상담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통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국제문화 이해교육 및 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 체험 및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기본예절 및 윤리의식 함양 등을 실시’ 하는 것이었다.

둘째,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수준별 교수·학습 기반조성, 수준별 수업확대,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기초학력 확보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생진학지도 등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이행,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 전개’를 위한 탐구·실험 중심의 교육활동,

외국어 공교육 강화 등 ‘국제화 시대의 외국어 경쟁력 강화’, ‘교육·보육이 조화로운 유아 교육’의 창의성과 인성 교육과정 운영,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강화’ 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셋째, 창의성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독서교육 활성화 및 사고력·표현력 신장을 위한 ‘확산적 사고력 증진의 일환으로 독서·글쓰기 교육 충실’,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 강화’,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선택 및 교육기회 확대,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 실시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기반 조성’, ‘더불어 꿈을 키우는 교육안전망 확충’, ‘보람·공지를 갖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실시한다고 계획하였다. 또한 다양한 창의인성교육 체험활동으로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운영 및 학예제를 통한 학교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순회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도 강화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도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컬러 폴 대구’와 함께 하는 디자인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창의성 교육 내실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가 16개 시도교육청의 공통적 교육지표와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다. 탄탄한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구축하는 것과, 바른 삶을 살기 위한 기본예절과 윤리의식 함양 등을 통해 기본 덕목인 인성 또한 함양하겠다는 것,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창의성을 증진시켜나가겠다는 것뿐 아니라, 교육을 위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창의성 증진을 위한 방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발견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 즉 사고력 측면의 창의성뿐 아니라, 인성 또한 창의인재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도 알 수 있었고, 둘째, 창의인재육성은 학령기의 아동들에게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全) 생애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적 제시도 필요하다는 것(김승보, 2007; 조대연 외, 2008), 셋째, 국내에서뿐 아니라, 글로벌(global) 시대에 맞춰 국제적인 역량으로서 글로벌한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2. 교육 선진국의 정책특징과 시사점

조사·분석결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다. 비록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념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소수의 아이들만을 위한 엘리트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맞춤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가 타인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를 독특한 존재로서 인정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개인의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창의성 교육을 또 다른 엘리트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남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높은 위치, 보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교육이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교육 선진국의 현황을 점검하고 도출한 국가별 교육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교육 선진국(혹은 국제기구)의 교육정책의 특징¹⁾

국가/국제기구	교육정책의 특징
미국	학생의 잠재력 개발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개인 능력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체계 개혁 및 추진
핀란드	창의성, 비판적 사고, 자기 신뢰, 사회적 소통을 중시하고, 함께 학습하는 분위기 조성 및 협동하는 자세 유지, 평생교육 제도화
덴마크	모든 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육시킨다는 취지하에 평생교육 추진, 세계적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추구
영국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개혁 지원정책을 위한 학교와 교육연구기관 및 평가기관의 연계체계 구축, 일선학교의 자발적 교육과정 개선유도
이스라엘	평준화와 수월성 위주의 교육정책 병행, 잠재력 조기발견을 위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간학문적 접근 등 추진
싱가포르	정부 중심의 계열화 교육제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특성화학교 운영, 최근에는 통합교육 및 계열 간 이동 확대 등 교육의 구조개혁 시행
독일	수준별 교육, 선택교육과정개설, 보충학습, 촉진학습, 심화학습 등 개별화 교육을 통해 학생 능력발휘 유도 및 뒤처지는 학생에게도 성취동기 부여
호주	인간존중, 민주주의, 개인행복 추구 등 호주인의 가치관을 기본으로 개인의 취향과 차이를 인정하고, 토론과 에세이, 실습과 경험 중심으로 교육
OECD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는 생애핵심역량 규명

이와 같은 교육 선진국의 정책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잠재력 개발은 곧 국가 경쟁력이므로 교육 평등을 위해 국민의 교육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의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뿐 아니라,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교육훈련기회 보장 등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 위 표는 다음 참고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재정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고형일 편저 (2008): 구자역 (2002): 김성열 (2010): 김영희 (2010): 김춘일 (2006): 김희원 (2003): 백경미 (2009): 조선일보 2007. 1. 5일자/1. 9일자/1. 16일자/1. 19일자: 조연순 외 (2010): 조연정 (2009): 최혜원 (2010): 한국과학창의재단 (200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2009):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 기획팀 (2010)

둘째,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할 뿐, 단위 학교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창의성을 국가교육의 모토로 하고 국가기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융합적인 접근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전공을 세분화하되, 간학문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계열 간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넷째,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OECD의 DeSeCo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가 생애핵심역량을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형성, 사회적인 수준에서의 평화와 안寧, 사회적 통합, 평등, 인간권리, 환경보존 등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그 예이다.

IV. 국내 교육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과 실제 사례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토양에 부합하는 창의인재육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표 2>와 같이 해당 분야에서 창의인재육성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각계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적 토양에 근거한 창의인재의 정의는 무엇이며, 한국의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둘째,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 실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셋째,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이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이다.

<표 2> 질적 연구를 위한 설문참여 전문가들의 정보

전문가 명단	분야	성별	전공	연령
전문가 1	산	남	경영·경제	30대 후반
전문가 2	학	남	사회과학	40대 초반
전문가 3	학	남	인문·사회	50대 초반
전문가 4	학	남	과학기술	40대 중반
전문가 5	학	남	예술문화	40대 중반
전문가 6	연	여	유아교육	30대 후반

따라서 전문가들을 활용한 질적 연구의 설문내용은 <표 3>과 같이 총 3개 영역에서 9 가지 문항으로 구성한 후 총 3회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고, 진행한 결과 중 대표적인 공통사항을 종합·분석하였다.

<표 3> 질적 연구를 위한 설문영역 및 설문문항 요약

구분	내용
한국적 창의인재의 정의와 요소	한국적 창의인재 모형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 유무와 이유
	창의인재의 정의
	우리나라의 창의인재선정과 그들이 가지는 한국적 특성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제도권 교육 내·외의 지원 방안	‘융합’과 ‘통합’이 창의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점과 그를 위한 접근방법
	학교교육(제도권교육) 내에서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창의인재의 전생애적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학교교육 외에서의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창의인재육성의 필요성 인식을 위한 방안
	(일반적, 지역사회적, 국가 정책적, 방안)
	연령 단계별로 창의인재육성에 필요한 사회적 장(場)과 교육방법

V.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방향

1. 한국적 창의인재란

전 세계는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지원해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이며, 이를 위해 교육적,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적 토양에 부합하는 창의인재에 대한 개념적 필요성에 대해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특히,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고 주입식 교육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 창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한국의 유일무이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토양에 근거한 창의인재 모형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가깝던 시절에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모방(imitation)으로도 충분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현재는 ‘모방에서 혁신(imitation to innovation)’로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無)라는 바탕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샌드위치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인구, 자원 등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적)창의인재모형을 정립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인재에 대한 정의는 “상상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하지만 질적 연구를 통해 정리된 창의인재에 대한 정의에는 “새롭고, 유용한 것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대표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적 창의인재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새로움”이라는 것보다는 “유용함”에 더 비중을 두어 개념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이 “유용함”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은 능력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는 창의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 해결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 또한 가치중립적이 아닌 ‘공동의 선’을 지향하고 있었다. 창의인재들이 가져야 할 요소에 ‘독창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문제해결력’을 기본으로 하여 타인을 사랑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건강한 자아정체성’ 혹은 ‘높은 자존감’을 비롯해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 ‘인간애’ 그리고 ‘높은 윤리의식’ 등 창의인재가 제안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들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적 토양에 부합하는 창의인재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창의적 인물을 정하고, 그들이 가지는 한국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그 결과, 구체적인 인물 선정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보였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창의적 인물로 선정된 사람들이 가지는 한국적인 창의적 특성에는 타인을 생각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아래는 전문가들의 의견 중 일부이다.

- 세종대왕: 제왕의 자리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한글 창제의 주도적 역할은 물론 과학을 장려하였음;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
- 장영실: 본인이 처한 사회적인 제약(사회적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생활의 편의성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발명품을 고안; 사회적 문제 해결
- 안철수: 새로운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여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창조성과 집념, 공익중심 사고(공동체 의식), 감성적 리더십(영혼과 철학 강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창의인재에 대한 정의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었다.

“환경(공동체, 사회, 국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

또, 한국적 창의인재가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인지적 요소, 창의적 요소, 정의적 요소 등 3가지 요소로 범주화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지적 요소: 문제발견능력, 사회적 통찰, 표현능력, 의사결정능력,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 창의적 요소: 독창성, 상상력, 문제해결능력, 추상성, 확산적 사고, 논리분석적 사고, 유추적 사고, 비판적 사고
- 정의적 요소: 높은 자존감, 심미감, 도전정신, 호기심, 이타심, 윤리의식, 긍정적 사고, 과제 집착력, 글로벌(global) 리더십, 개방성, 몰입

2.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제도권 교육 내·외의 지원 방안

국내외 조사를 통해 창의인재육성에는 ‘융합’과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질적 연구를 통해 창의인재육성에 대해 ‘융합’과 ‘통합’의 키워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질문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자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 6인 모두가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융합’과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융합과 통합은 이미 사회적 흐름이면서 우리의 암기 위주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융합과 통합적 접근을 위한 교육적인 방법으로는 교육현장의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 수능시스템, 교과내용, 학습방식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의견은 그 내용이며, 이 내용을 통해 융합과 통합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융합과 통합을 지향함에 있어서 교육적 접근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의 생산 단위가 집단인 것과 그 생산의 개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각 개인이라는 두 가지 점을 모두 교육적 관점에서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들이 일관적으로 제시하는 바, ‘우리’를 강조하면 회피적인 동기 위주의 사고/행동이 기초를 이루며, ‘나’를 강조해야만 접근적인 동기 위주의 사고/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융합과 통합의 지향적인 “우리”와 분리 혹은 독립성에 기초를 둔 ‘내’가 세부적인 창의성 발현과정에서 적절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융합과 통합이 실제적으로 체득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융합과 통합의 사례들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실제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융합과 통합을 이용한 실제적인 교육에 앞서, 경쟁과 그에 따른 속도전을 지양하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융합과 통합 교육의 실현을 위한 학교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융합할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것은 일반 교원의 연수교육에 의한 전문가화(化)를 통해서이기도 하였고, 실제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교육에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적인 지원과 더불어 필요한 것은 실제수업에 도움이 되는 공간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하드웨어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외의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접근은 먼저 교육현장에서의 직·간접적 체험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창의인재의 전(全) 생애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창의인재육성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가 전원이 전 생애를 통해 양성되고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국민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언론홍보, 교육정책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도 지적되었다.

아울러 창의인재 육성의 국민적 의식함양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창의인재 프로그램과 중장기적으로 구축이 가능한 창의인재육성 인프라의 지역사회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하지만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사회별 특성에 적합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런 함의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게 각 연령별로 특별히 필요한 사회적 장(場)과 융합 분야 그리고 각각을 위한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어린 연령일수록 가정(家庭)과 같은 일차적인 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장(場)에서 흥미 있는 내용, 예컨대 예술이나 체육 등의 영역에서 신체활동에 기초한 직접체험 위주의 교육방법을 강조하였고, 나이가 들고 고학년이 될수록 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장(場)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형식적인 틀 속에서 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활동에서의 체험활동과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을 지적을 하였다. 예컨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의 발견과 해결 그리고 표현 능력이 특징인 초등학교 시절에 필요한 사회적 장(場)은 학교 및 방과 후 급우활동/체험활동이다. 여기에서는 편견, 고정 관념화되어 있는 다양한 상식 수준의 관습적 지식들 및 예외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례들(혹은 더 나아가 이러한 예외가 오히려 다수가 되는 문화, 국가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으로 개개인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필요한 융합 분야로는 사교육이 배제된 교내 예술/체육/체험 활동 등을 통해 그것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 성인기의 문화적인 향유(또는 이에 기초한 창의적 능력/인성 함양)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이런 과목들을 전담으로 하는 전임교사(혹은 초빙교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반면, 자아정체감 확립 등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주요 시기이면서 대학 진학과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중학교 시기에는 특정한 교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교과와 연계하는 등 지식을 확대할 것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전정신, 확산적 사고, 정체성 등이 특징인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의 기존과목 등을 통해 개

별 교과에서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탐색, 한 교과의 내용으로 다른 교과내용을 표현/설명하는 방식 등을 통해 확산적 사고에 대한 연습과 체험을 도모해야 하며, 말하기, 쓰기와 관련된 교육의 융합과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입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교육정책에 매우 민감한 고등학교 시기의 창의인재육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학생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축소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하나의 정답만을 맞춤으로써 대학 입시를 가름하는 우리나라 교육체계를 지적하는 또 하나의 단면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석적 사고,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 등이 특징인 고등학교시절에는 학교의 별도 학업단위/장면 등 사회적 장(場)을 통해 중학교 시절에 배양한 확산적 사고의 정교화를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가시화/현실화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자신의 아이디어를 축소하지 않도록 병행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기에 필요한 융합분야는 일종의 ‘산출물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Product-based program)’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직접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현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교내 신문사, 교내 연론사 등 다양한 교내 기관들에 대한 자치 운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는 학생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

사회로 나가는 첫 단계이자, 자신의 사고를 보다 가설적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상위(High Level) 인지적인 사고가 가능한 대학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습득하는 지식을 외부와 쌍방향적으로 탐색하고 교류함으로써 지식발달의 채널을 보다 개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추적 사고, 과제 집착력, 관계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학시절에는 대학과 기업 혹은 대학과 대학원의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사회적 장(場)을 통해 대학의 개별 강의에서 습득한 내용이 기업 또는 대학원(혹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적용되는 사례와, 역(易)으로, 대학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가 대학 내 학습내용 중 어느 것들과 관련 있는가 하는 사례를 양방향으로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체적으로 추적하는(Full tracking)’ 작업을 개인/그룹 단위에서 수행하는 교육방법을 택해야 하며, 인문학에 대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역방향의 교육에 기초한 산·학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융합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인문학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 자신이 현재 배우고 있는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내용들이 거시적으로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를 연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 외에도 대학교 이후 시기에는 직장 및 가족이라는 사회적 장(場)을 통해 일에 대한 매몰 및 사회 내의 다양한 고정관념들에 대한 탈피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는 사회교육/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주변에 불안한 요소들을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방법과, 그 의

미를 이해하고 세대 간 의사소통을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신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나가는 기회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에 대한 지나친 몰입이 주는 부정적 효과와 ‘일·잠복기-일로의 복귀-재잠복기’에 선순환 구조를 체득토록 하는 자기인식프로그램을 구축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과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할 뿐 아니라, CEO 및 사회지도층의 인식 전환을 교육해야 함도 지적하였다.

VI.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창의인재육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토양에 부합하는 창의인재를 정의하고, 그 지원체계는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한국적 창의인재육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에 따른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 교육청의 시정계획서에는 창의성과 인성을 기본개념으로 한 창의인재육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충실한 기본교육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수준별 수업 확대, 외국어 공교육 강화 등 국제적 감각을 가진 인재육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을 통해 국가를 이해하는 교육 및 체험수련 활동 등을 통해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드러났다. 그러나 16개 시도교육청이 육성하고자 하는 창의인재에 대한 합의를 찾기는 어려웠다. 정부가 핵심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조작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이 추진하는 계획은 명확한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와 달리,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교육 선진국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정책 동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 및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중·고 교육과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은 수직적 연계와 일관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이 특정 시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역량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 주기적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드는 비용과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도 평생교육측면에서 창의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격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달성해야 하는 역량과 사회적 지원, 교육기준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방향성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국적 창의인재육성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전문가들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적 창의인재란 환경(공동체, 사회, 국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과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둘째, 한국적 창의인재는 인지적으로는 문제발견능력, 사회적 통찰능력, 표현능력, 의사결정 능력,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독창성, 상상력, 추상성,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논리·분석적

사고, 유추적 사고, 비판적 사고가 포함되는 창의적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높은 자존감, 호기심, 도전정신, 윤리의식, 긍정적 사고, 글로벌 리더십, 개방성, 몰입에 대한 정의적 요소가 필요하다. 셋째, 창의인재는 평생교육측면에서 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이미 중요한 화두임을 인지하여 2002년 이후 꾸준히 평생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있다. 교육 선진국인 덴마크는 평생학습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광범위한 교육개혁에 착수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개별 학생의 ‘필요에 맞춘’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개인이 가진 최상의 능력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란 이것을 끄집어 내주는 외부의 촉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는 원하는 모든 이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에서의 교육은 언제든지, 그리고 반드시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인력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적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키워드는 ‘융합’과 ‘통합’이다. 단, 일방적인 융합과 통합은 오히려 창의인재육성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다양성을 밑바탕으로 한 통합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방적 기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현 수능시스템이나 교과내용, 강의 위주의 학습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창의인재육성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체험활동 강화, 학생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과내용 20% 감축 등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급별·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에서는 자율이 녹아든 융합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학교가 더 많이 운영되어야 하며, 평가방식의 선진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적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가화(化)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매우 중시하는데 사범대를 졸업하더라도 3~4년간의 교육훈련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한해서 교원시험 자격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사가 자질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연수를 받는 경우, 대리교사 제도 및 연수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인지할 때,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훌륭한 교사를 통해 탁월한 인재가 발굴되었고, 이것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방법이 강의식, 주입식이라는 일방적 통로를 통해서였다면, 이제는 학생의 역량과 교사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통합될 수 있는 쌍방향적 통로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이다. 이는 교사양성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하며, 교사의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훈련방안도 고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응답한 전문가들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한 시설, 인프라, 교재 확보, 교사교육, 교육기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단순히 교사만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회 전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까지도 변화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교육정책의 방향과 개선점을 짚어 보고, 해외 교육 선진국들의 정책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인문사회, 예술, 과학 영역 및 산학연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한 보다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we.go.kr> (검색일: 2010. 10. 20)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검색일: 2010. 10. 20)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검색일: 2010. 10. 20)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be.go.kr> (검색일: 2010. 10. 20)
- 고형일 편저 (2008). **세계의 수월성 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 (검색일: 2010. 10. 20)
- 구자역 (2002).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 문음사.
- 김성열 (2010). **일본과 핀란드의 과학 교실 학습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0-4-1.
- 김승보 (2007). **평생학습사회 만들기: 교육에서 학습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개혁포럼.
- 김영희 (2010). **덴마크식 교육법**. 서울: 명진출판.
- 김왕동, 성지은 (2009).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춘일 (2006). 창의성 교육의 국제 동향-영·미·독·일의 경유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15**(3), 225-244.
- 김희원 (2003). [세계의 과학영재] 미래를 낚아라-상상을 펼쳐라. 한국일보 2003. 2. 16일자 기사. <http://http://news.naver.com> (검색일: 2010. 09. 26)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검색일: 2010. 10. 20)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 (검색일: 2010. 10. 20)
- 백경미 (2009). 영국 초등학교 창의성교육의 현황. **한국초등교육학회 2009년 학술대회**.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검색일: 2010. 10. 20)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en.go.kr> (검색일: 2010. 10. 20)
- 송충환, 송재준, 정재승, 김성근, 금종해, 김대식, 박인호, 윤호규, 장대익 (2009). ‘창의한국’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대전: 한국연구재단.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검색일: 2010. 10. 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ice.go.kr> (검색일: 2010. 10. 20)
-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ne.go.kr> (검색일: 2010. 10. 20)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be.go.kr> (검색일: 2010. 10. 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jje.go.kr> (검색일: 2010. 10. 20)
- 조대연, 김희규, 김한별 (2008). **미래의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 연구**.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8-7-3.
- 조선일보 2007. 1. 5일자 A12면(특집) 기사 : 창의성 교육현장 — ④영국 크라이스트 처치 커시드럴 스쿨.
- 조선일보 2007. 1. 9일자 A12면(특집) 기사 : 창의성 교육현장 — ⑤이스라엘 초·중등 창의성 영재교육.
- 조선일보 2007. 1. 16일자 A14면(특집) 기사 : 창의성 교육현장 — ⑧싱가포르 국립대 수학·과학중고교.
- 조선일보 2007. 1. 19일자 A12면(특집) 기사 : 창의성 교육현장 — ⑥이스라엘 예술과학 아카데미(IASA).
- 조연순, 정혜영, 백경미 (2010). 창의성 증진 요소와 교수·학습과정 특성 탐색: 영국 초등학교 창의성 교육 사례연구. **초등교육연구**, 23(2), 95-120.
- 조연정 (2009). 교육계 화두로 떠오른 핀란드 교육 속속들이 살펴보기: 3회 연속 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 교육. <http://search.chosen.com> (검색일: 2010. 09. 26)
-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ne.go.kr> (검색일: 2010. 10. 20)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검색일: 2010. 10. 20)
- 최혜원 (2010). [핀란드 교육] 핀란드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주간조선, 2098호, 2010. 3. 29일자 기사. <http://weekly1.chosen.com> (검색일: 2010. 09. 2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2008 국제 교육연구·사업 -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교육평가동향**.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2009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 덴마크, 독일, 미국,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핀란드, 호주**.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총서기획팀 (2010). **핀란드 교육혁명**. 서울: 살림터.
- 한국과학창의재단 (2009). **국내외 수학과학 및 창의교육 정책 동향 및 교육사례 조사 분석**. 서울: 한국과학창의재단.
- Mihaly, C. (1996).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Y: Harper Collins Publishers.

=Abstract=

Research on Establishing Master Plan to Foster Creative Human Resources

Ji Yeon Seo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Sung Kook Kim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Jae Gyu Byon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 Creativity

Enhancing individual competitiveness as well as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creative human resources are one of the important visions of the nation. Thus, fostering creative human resources should be important mission of the 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at type of creative human resources is possible, based on Korean culture and background. Qualitative research experts was given to six experts of academics, institutes, and industries in science, humanities, social science, and art. The result indicated that key words for fostering creative human resources in Korea are 'fusion' and 'integration', and the definition and factors of creative human resources as well as educational strategy to foster it depend upon them. How to foster creative human resources in life-long learning also discussed.

Key Words: Creativity, Creative human resources, Fusion, Integration, Life-long learning

1차 원고접수: 2011년 5월 4일

수정원고접수: 2011년 6월 1일

최종게재결정: 2011년 6월 14일